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33 호 진로를 선택하는 계획된 우연

계획된 우연이 만들어가는 인생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우연의 힘

심리학자인 존 크럼볼츠(John Krumboltz) 교수는 1999년, '우연한 사건들이 개인의 진로 설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우연 중 자신의 노력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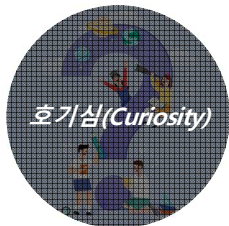
한 사람의 진로 발달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만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비명과 출혈을 우연히 경험하면서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고픔에 요리를 했다가 우연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껴 요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소질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우연한 계기'입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여러 시도를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직접 도전해 보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진로발달과정입니다. 나의 진로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로 결정을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전을 멈추지 말고, 우연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봄으로써 만나게 되는 '우연한 계기'들이 나의 진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김춘경 외(2016), 「상담학 사전」 /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2014),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진로교육 Tip 계획된 우연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

존 크럼볼츠는 성공한 사람들의 행운이나 성공에는 우연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끌어내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찾아올지 모르는 절호의 기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마음 자세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음 5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보세요. 계획된 우연의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우연히 만난 그 사건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Curiosity)

궁금한 것이 사라지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끈기(Persistence)



융통성(Flexibility)

고정관념을 버리면
생각지 못한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낙관성(Optimism)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마주치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위험감수
(Risk taking)

안전한 것은 없으므로
위험을 예측하며 불확실한
결과에도 도전합니다.

(출처 : 김춘경 외(2016), 「상담학 사전」.)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겪고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해지죠. 진로 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결정에는 자신의 지능, 성격, 적성, 환경, 능력, 흥미 등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우연적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마음 자세에 따라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마주한 생각으로 '작가'로서 진로를 결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연한 생각, 나를 소설가로 만들다

직업은 우연히 결정됩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1978년 4월 어느 쾌청한 날 프로야구 개막 경기를 관람하다가 응원하는 팀의 첫 타자가 2루타를 날리는 순간 아무런 맥락도 근거도 없이 문득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가 끝나고 서점에 들러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와 그날 밤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설가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때의 감각을 나는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하늘하늘 천천히 내려왔고 그것을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듯한 기분이었습시다. 뭐라고 해야 할까,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어에 epiphany(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어느 날 돌연 뭔가가 눈앞에 켜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바뀐다.'라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 오후에 내 신상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내 인생의 양상이 확 바뀐 것입니다. 데이브 힐턴이 최고의 타자로 친구구장에서 아름답고 날카로운 2루타를 날린 바로 그 순간에!"

(출처 : 동아일보, 2018.11. 하루키 "매일 20장씩 달린다", 무라카미 하루키(2016),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계획된 우연 더 알아보기

'질'보다 '양'이 우연한 성공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도 해요

도자기 공예 강사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자기 작품 채점 기준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룹에는 "도자기를 50개 만든 학생은 A,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겁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만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양'을, 두 번째 그룹에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한 것이죠. '양'과 '질'로 나눈 이 평가에서 당신은 어느 그룹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결과는 놀랍게도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질을 앞세우는 행동은 실수는 적지만, 일에 능숙해질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커다란 성공은 정밀하게 잘 설계된 계획과 이를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는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 즉 **'사람은 수많은 기회 중 우연한 계기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진로 결정 이론을 완성하고 '작은 행동'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행동을 하면 지속적인 발전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당신 자신을 중요한 문제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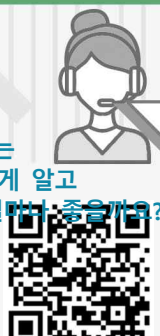
(출처 :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2014),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WEEKLY NEWS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화·목요일** 팟캐스트(iOS)&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

<특특!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